



# 주간 중국 창업

제 96 호 (2018. 9. 12)

발행처: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고영화

전화: +86-136-8309-8080  
메일: [yhko@kicchina.org](mailto:yhk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 주간 중국 창업 NEWS

- ▶ '2018 중국기업 500 강' 발표(제일경제, 2018.9.2)
- ▶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합병설?(봉황망커지, 2018.9.5)
- ▶ 54 세 마윈 회장직 사퇴? 후임은?(봉황망커지, 2018.9.8)
- ▶ '즈단메세지(子弹短信)', '총구'를 벗어나다, 도전자인가 개척자인가(시나닷컴, 2018.9.9)

## 중국 전문가 ISSUE

- ▶ Robot & AI (2018.9.11) – SV Investment 제공
- ▶ BIO & Healthcare (2018.9.11) – SV Investment 제공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2018.9.10) – PLAYCOIN 제공
-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45) (2018.9.11) – 윤형건 교수 제공

## 주간 중국 VC 투자 요약

- ▶ IT오렌지 주보: 9/3~9/9까지 있었던 75개 국내 투자/합병 건(IT오렌지, 2018.9.10)

## KIC중국 NEWS

- ▶ 북대 인큐베이터 한국 프로그램 및 KIC중국 5기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추진계획(안) v4.3
- ▶ IDE-EXPO 참가계획(안)(2018.8.29)
- ▶ 북대 '창계미래' 2018 국제청년과기창업대회 한국전 및 졸업식 추진계획(안)(2018.9.10)

## 주간 중국 창업 NEWS

1. '2018 중국기업 500 강' 발표 (출처: [第一财经](#), 2018.9.2)

'2018 중국기업 500 강'이 9월 2일 발표되었다. 500 강 진입문턱이 16년 연속 높아지면서 '2018 중국기업 500 강(强)'의 진입문턱은 300 억위안을 돌파했다. 3 강은 여전히 국가전기망(国家电网), 중국석유화학, 중국석유이며 500 위에 오른 행운아는 1997년에 설립한 산둥후이펑(山东汇丰)석유화학집단유한공사이다.

500 강의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에 60 조위안을 넘어선 후 2018년에는 70 조를 돌파한 71 조 1700 억위안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중국 경제총량의 86%으로 일본, 독일, 영국의 경제총량 합계보다 많은 수준이다.

매출액이 1000 억위안을 초과한 기업수는 172 개로 지난해보다 15 개 늘어났으며 증가속도는 최근 몇년간 가장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천억클럽'중에 매출액 1 조를 달성한 초대형 기업그룹은 5 개이다. 지난해 국가전기망이 매출액 2 조위안을 돌파했지만 올해에는 중국석유화학, 중국전기망, 중국석유가 매출액 2 조를 달성했다. 공상은행과 중국건축의 매출액은 1 조를 넘어섰으며 그 중 중국건축은 올해 처음으로 '천억클럽' 내의 '조(兆)급 구성원'이 되었다. 3 년만에 처음으로 매출액 1 조를 돌파한 기업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 前十名榜单

1	国家电网有限公司	235809970
2	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	220974455
3	中国石油天然气集团有限公司	220335751
4	中国工商银行股份有限公司	108505900
5	中国建筑股份有限公司	105410650
6	中国平安保险(集团)股份有限公司	97457000
7	中国建设银行股份有限公司	90525300
8	上海汽车集团股份有限公司	87063943
9	中国农业银行股份有限公司	82702000
10	中国人寿保险(集团)公司	81254776

## 돈을 가장 많이 버는 10대 중국기업

500 강 기업에서 금융, 통신, 인터넷서비스, 부동산개발업체가 가장 많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2018 중국기업 500 강'중에서 33 개 금융기업이 10 조 7 천억위안, 1 조 7 천억위안의 매출액과 순익을 실현했고 이는 전체 기업의 15.0%, 65.8% 차지했다. 금융업에서도 은행업이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17 개 은행의 순익은 1 조 4 천억위안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500 강 기업에서 3.4% 차지하는 은행이 전체 수익의 43.4%를 벌어들인 셈이다.

순익 10 위권으로 진입한 기업은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핑안(平安), 텐센트, 차이나모바일, 초상은행, 교통은행이다. 그 중 공상은행의 순익은 2860 억위안이다. 즉, 공상은행의 1 년 순익은 62 위인 지리홀딩스(吉利控股) 1 년의 매출액보다도 100 억위안 많으며 179 위 항강그룹(杭钢集团)의 3 년 매출액에 상당하다

## 中国最赚钱的十大企业

企业名称	利润总额(万元)
1 中国工商银行股份有限公司	28604900
2 中国建设银行股份有限公司	24226400
3 中国农业银行股份有限公司	19296100
4 中国银行股份有限公司	17240664
5 国家开发银行股份有限公司	11238700
6 中国平安保险(集团)股份有限公司	8908800
7 腾讯控股有限公司	7451000
8 中国移动通信集团有限公司	7388500
9 招商银行股份有限公司	7063800
10 交通银行股份有限公司	7022366

## 베이징, 산둥, 장쑤에 500 강 기업이 가장 많아

기업가들은 보편적으로 어느 성에 500 강 기업이 가장 많은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로 볼 때 베이징은 79 개, 산둥성은 49 개 업체로 1, 2 위를 차지한 가운데 장쑤, 저장, 광둥이 3 위에서 5 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보다 미래를 더 유심히 봐야 한다. R&D 강도는 연구개발비용과 매출액의 비율로서 기업의 혁신공간과 잠재력을 대표한다. 이 측면에서 보면 광둥성의 R%D 강도는 3.3%로 기타 지역을 훨씬 앞서고 있다.

전반적으로 '2018 중국기업 500 강'의 평균 R&D 강도는 1.56%인데 이는 통계 사상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며 2017 년보다 0.11 퍼센트포인트 상승했다. 업계별로 보면, 첨단장비제조업의 R&D 강도가 가장 높는데 그 중 통신장비기업은 11.92%, 반도체·집적회로·패널기업은 6.94%, 공정기계 및 부속품기업은 5.21%, 우주항공기업은 5.15%이다.

2018中国企业500强区域企业平均研发强度排名

排序	地区	企业数量	地区研发强度/%	排序	地区	企业数量	地区研发强度/%
1	广东	40	3.30	16	黑龙江	2	1.11
2	吉林	2	2.76	17	江苏	46	1.06
3	湖南	7	1.96	18	重庆	10	1.06
4	四川	12	1.93	19	上海	21	1.00
5	山东	49	1.92	20	新疆	4	0.88
6	浙江	43	1.85	21	宁夏	2	0.81
7	河南	10	1.82	22	贵州	1	0.71
8	陕西	6	1.61	23	甘肃	4	0.71
9	辽宁	3	1.60	24	广西	6	0.63
10	湖北	9	1.58	25	内蒙古	3	0.51
11	山西	9	1.45	26	天津	5	0.43
12	北京	79	1.41	27	云南	7	0.42
13	安徽	11	1.40	28	福建	6	0.19
14	江西	7	1.27	29	青海	1	0.06
15	河北	21	1.16				

이외에도 화웨이(华为), 베이다팡정(北大方正), 차이나유니콤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300 강 기업 중에서 특허보유수량이 1000 건 이상, 발명특허비중이 90% 이상인 기업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수량(비중)은 화웨이 74304 건(90%), 베이다팡정 4018 건(91.84%), 차이나유니콤 1370 건(92.63%)이다.

특허기술은 한 국가의 기술수준과 혁신능력을 반영하는 기준이며 발명특허는 실질적 가치가 가장 높은 지표이다. 2018 중국기업 500 강의 전체 특허 중에서 발명특허비중은 36.16%로 지난해보다 5.27 퍼센트포인트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2013 년부터 중국기업 500 강의 특허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바 현재의 발명특허비중은 5 년전에 비해 10.65 퍼센트포인트 상승했다. 앞으로 더 많은 중국기업들이 발명특허를 보유해 혁신중국에 더 많은 에너지를 주입하기를 기대해 보자.

## 2.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합병설?(출처:凤凰网科技, 2018.9.5)

미국과의 5G 이동통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중국의 3 대 이동통신사 중 2 개 업체가 합병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오늘 오후에 전해져왔다. 중국 3 대 이동통신사 중 차이나모바일이 부동의 1 위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이 합병할 가능성은 거의 99%이다.

이 호재에 힘입어 홍콩증시에서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주가가 폭등했다. 그 중 차이나유니콤은 장 중 한때 8%, 차이나텔레콤은 6% 가까이 상승하면서 차이나유니콤은 5.86% 오른 9.58 홍콩달러, 차이나텔레콤은 4.01% 오른 3.89 홍콩달러로 마감했다.

기자가 두 업체의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아는 바 없고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다.”는 답변만 받았다. 합병설은 수년 전부터 몇 번이나 흘러나왔다. 물론 합병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오는 법은 없다. 몇 번이나 소문이 흘러나온 것을 보면 이는 정책결정층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의 하나임이 유력하다.

지난달에 진행한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의 실적발표회에서 기자는 합병 관련 두 업체의 회장에게 질문한 바 있다. 차이나유니콤의 왕샤오추(王晓初) 회장 겸 CEO 는 관리부문의 정식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한 반면 차이나텔레콤의 양지예(杨杰) 회장 겸 CEO 는 직접 부인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상급 부문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에는 업무 진행상황과 결과 혹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는 것이 중국의 관습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상장회사가 규정에 어긋나게 중차대한 사항을 누설하는 것은 법률 위반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두 업체가 부인한다 해서 그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단호하게 부인하지 않는 것은 호전 혹은 그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 원인의 합병

첫째. 합병은 차이나모바일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모두가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합병목적은 차이나모바일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 중국의 3 대 이동통신사 중에서 차이나모바일의 규모는 기타 두 업체를 합친 것보다 2 배나 클 정도로 독주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7 년 재무보고에 따르면, 차이나모바일의 전(全)년 매출액은 7405 억위안, 순익은 1143 억위안, 차이나텔레콤의 매출액은 3662 억위안, 순익은 186 억 1700 만위안, 차이나유니콤의 매출액은 2748 억 2900 만위안, 순익은 18 억 2800 만위안이다.



보다시피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매출액 합계가 차이나모바일 매출액의 86.6%에 불과하다. 순익은 차이나모바일의 17.9%이다. 다시 말해 차이나모바일의 수익률은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수익률 합계의 4.8 배이다.

이렇듯 중국 통신업계의 마태효과(부익부 빈익빈 현상)가 매우 뚜렷하다. 이미 차이나모바일의 독주체제가 형성된 국면에서 차이나모바일을 분해하거나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을 합병하지 않고서는 차이나모바일을 견제하기 어려우며 독점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된다.

둘째, 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운영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차이나모바일 분할보다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합병을 더 유력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궁극적으로 자원이용률과 운영효율의 문제이다. 합병과 달리 분할은 자원이용률과 운영효율 향상에 불리하다. 따라서 정책 결정기관이 전반적인 차원에서 합병옵션을 선택할 것이라 예측이 압도적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차이나모바일의 신호 커버범위가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보다 넓었다. 그러나 두 업체가 기지국 건설에 투자를 늘리면서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다.

차이나모바일은 수년 전에 이미 기지국 건설을 완성했다. 그 당시 요금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기지국 투자금도 단기간에 회수했다. 지금은 투자 없이 수익만 걷어들이는 상황으로 수익률이 매우 높다.

반대로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기지국 건설이 지지부진해 가입자가 적었다. 요금수준이 높을 때 별기는 커녕 지금도 여전히 기지국 건설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회수는 까마득한 별이다.

얼마전 중국정부는 중복건설로 인한 낭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테타(鐵塔)주식유한회사를 설립했다. 만약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낭비를 피할 수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통신사 합병의 붐이 일고 있다. 올 4월에 미국의 3, 4 위 통신사가 합병을 발표했다.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합병 또한 대세를 따르는 것이고 통신업계의 발전추세에 부합하다.

### 이상과 현실의 거리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합병과 관련해 두가지 난제가 존재하는데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합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첫째는 인원 재배치문제이다. 두 업체는 이미 오래동안 독자적인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완벽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합병하면 수많은 직원이 남아돌게 되는데 정리해고보다 골치 아픈 일은 없다.

둘째는 합병 후의 회사이름이다. 차이나텔레콤이나 차이나유니콤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상대방의 반감을 사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절충안으로 한 글자씩 딴 중국전통(中国电通) 혹은 중국연신(中国联信)의 회사명이라면 가능한 일이다.

### 3.54 세 마윈(马云) 회장직 사퇴? 후임은?( 출처:凤凰网科技, 2018.9.8)

9 월 8 일(베이징 현지시간) 오전 알리바바 주가는 마감 후 한때 3% 하락해 최저 157.5 달러까지 내려앉았다. 오전 8시 기준, 마감 후 거래가는 158.6 달러로 2.32% 하락했다.

장 중 알리바바의 주가는 1.56% 상승했다. 뉴욕타임스가 마윈이 다음주 월요일(9 월 10 일) 알리바바 이사회 주석직을 사임한다는 뉴스를 보도한 후 알리바바 주가는 장 마감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 마윈, 과연 회장직에서 물러나는가

뉴욕타임스는 마윈이 다음주 월요일, 알리바바 이사회 주석직을 사임해 교육 관련 자선사업에 전념할 것이며, 알리바바 이사직은 보류, 경영진의 업무를 지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월요일인 9 월 10 일은 마윈의 54 세 생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러 매체가 알리바바 측에 확인해보기도 했다. 상하이증권보는 알리바바가 직접 부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경제관찰보는 "알리바바 공공관계부서의 관련 인사는 이 소식을 부인했고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의 영향으로 알리바바의 주가는 장 마감 후 하락하기 시작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식이지만 마윈이 자신의 '교육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앞선 9 월 3 일에 진행된 2018 XIN 공익대회의 교육포럼에서 마윈은 나중에 다시 교육업계로 돌아가 모든 정력과 구상을 교육사업에 쏟겠다면서 "저는 교사직을 능수능란하게 수행할 수 있고 모든 일에 대해 호기심과 상상력이 많습니다."고 말했다.

마윈은 2014 년에 중국 농촌지역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마윈기금회'를 설립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주 월요일은 마윈의 54 세 생일이다. 바이두(百度)에서 검색해 본 결과 마윈은 1964 년 9 월 10 일 생이다. 과연 마윈이 54 세 생일날에 빅뉴스를 발표할 것인지 기대된다.

#### 마윈이 사임하면 후임은 누가?



마윈의 후임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은 40대의 현재 알리바바 CEO 장용(张勇)이다. 공교롭게도 알리바바에서 7월에 인사변동을 단행하면서 장용은 그룹의 법인대표에서 내려왔다. 공상등록정보에 따르면, 7월 16일 알리바바그룹의 법인대표는 장용 CEO에서 알리바바 창립멤버인 다이산(戴珊)으로 변경되었다. 알리바바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다이산은 1999년에 알리바바에 가입한 창립멤버의 일원으로

현재 알리바바 B2B 사업군 총재직을 맡고 있으며 그 전에는 최고고객책임자(CCO)를 맡았다.

텐엔차(天眼查)의 조사에 따르면, 예로부터 알리바바 CEO가 변경되면 법인대표도 함께 변경되었다. 2013년 5월에 마윈이 알리바바 CEO에서 내려오면서 후임으로 루자오시(陆兆禧)가 선정되었는데 법인대표는 이미 4월에 마윈에서 루자오시로 변경된 바 있다. 2016년 5월에 COO 장용이 루자오시의 후임으로 되었는데 법인대표는 4월에 장용으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올 7월의 법인대표 변경은 장용의 뒤를 이어 다이산이 CEO로 부임함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또 장용이 마윈의 바통을 이어받아 알리바바 동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아닐까. 답은 기다려봐야 한다.

현재 마윈이 보유하고 있는 알리바바 주식은 1억 6700만주로 지분율은 6.5%이다.

## 4. '즈단메세지(子弹短信)', '총구'를 벗어나다, 도전자인가 개척자인가

(출처: [新浪科技](#), 2018.9.9)



즈단(子弹, 탄알) 메시지가 하루 밤사이 IM 소프트웨어 '신귀족'으로 부상했다. 운영업체는 즈단 메시지의 키워드는 '효율'이라고 전했다.

8월 20일 런칭된 즈단 메시지는 한때 애플 iOS 차트 무료 소프트웨어 1위에 오른 바 있다. 런칭 7일 만에 54개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고, 3일 만에 1억 5천만 위안의 용자를 받았으며, 11일 만에 500만이 넘는 유저를 확보했다.

인간중심의 소통을 콘셉트로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는 즈단 메시지는 기존 IM 통신 틀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했다. 즈단 메시지 공동개발자 하오시제(郝希杰)는 "타 제품의 유저들에게 어필하려면 대체불가능한 접점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의 접점은 효율입니다. 신규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단지 10%만 향상되었다면, 유치가 어렵지만 효율이 100% 높아졌다면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

원페이(iflytech)의 음식인식기술을 도입한 음성 문자 동시 발송 기능은 그 정확도가 97%에 달한다. 음성 진도 바는 드로잉이 편리해 소통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밖에도, 메시지 리스트 페이지에서 채팅 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회신하는 기능, 메시지 리스트 페이지에서 읽지 않은 메시지를 직접 열고 음성 혹은 문자로 빠르게 회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즈단 메시지는 여러 개의 멀티 단말기에서 동시 접속이 가능하며, 채팅기록과 파일의 동기화가 가능한데 이는 각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데이터를 이전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했다.

즈단 메시지의 혁신성과 관련, "위챗은 뛰어난 소셜 프로그램이지만기능과 플레이법이 지나치게 다양해 소통의 효율성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더욱이 정보 교환에 대한 수요가 높은 사용자일 경우 위챗의 단점을 체감할 수 있다. 즈단 메시지가 바로 이 틈새를 노린 것이다"고 매체는 평가다.

즈단 메시지는 수많은 '마이크로 혁신'을 창출, 세분화 영역의 유저들을 대량으로 유치하며 모종의 혁명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게 될 것이다. 한 예로,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나날이 성숙해지면서, 특정 사무 환경에서의 업무처리 등은 기계가 담당할 수도 있다. 이를 즈단 메시지의 IM 통신기능과 접목하면 새로운 응용분야를 창출해 낼 수 있으며, 보다 스마트한 업무처리와 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즈단 메시지가 엄청난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된다.

## 주간 중국 전문가 ISSUE

## Robot &amp; AI (2018.9.11)



본 자료는 SV Investment(<http://svinvestment.co.kr>)에서 제작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중국 증권사 레포트, 신문, 협회 등의 언론 자료를 번역,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성, 정확성에 대해서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장형식 이사(jangform@svinvest.com), 배진희 심사역(jhbae@svinvest.com) 또는 윤이상 심사역(ysyoon@svinvest.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egatrend Investors(<http://cafe.naver.com/qfiichina>)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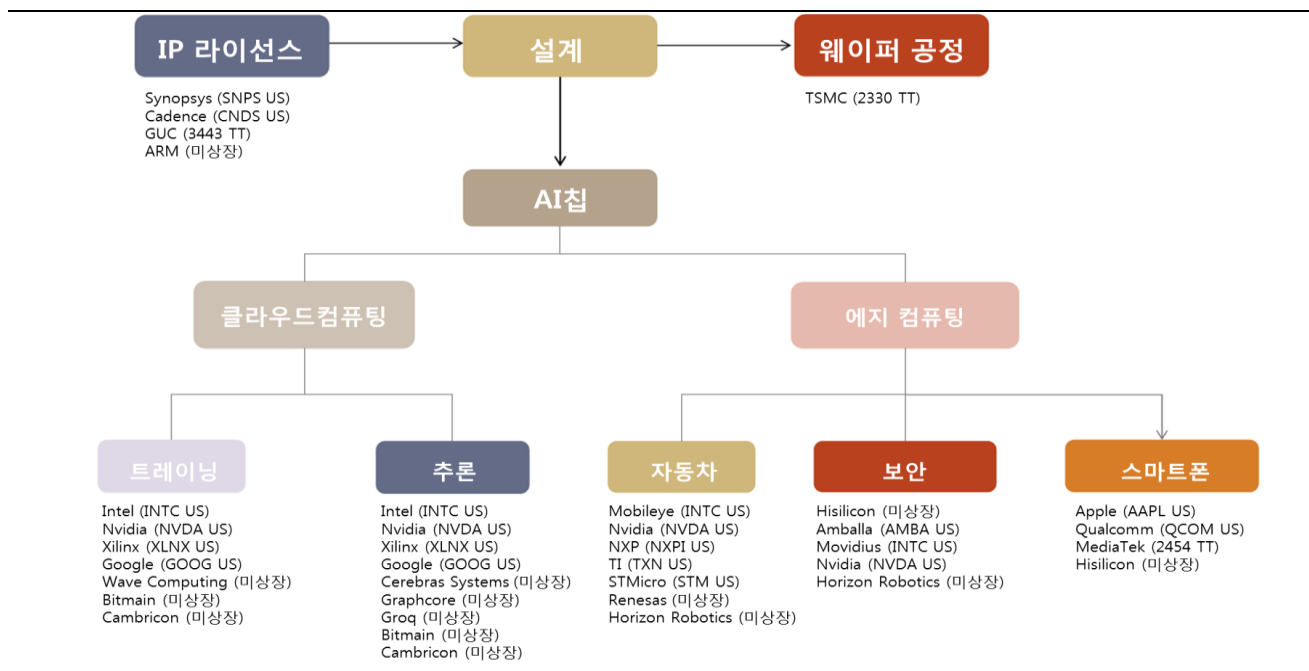
[전문자료 작성: 윤이상 심사역, 번역: 서윤영 (북경대 광화관리학원)]

## CICC - AI 칩: 제품 상용화로 다양화 이끌어

## AI 칩: 밝은 상용화 추세, 전문화 발전 양상을 띠

AI 칩 설계는 인공지능 산업 밸류체인의 중요한 일환이다. 2017년 5월 이래로 각 AI 칩 제조업체들이 앞다투어 신제품을 출시했고, 1년이 넘는 발전 끝에 단계별 분담이 명확해지고 있다. AI 칩의 상용화는 더이상 클라우드 단말에 국한되지 않고 스마트폰, CCTV,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AI 칩 성능 상향 외에도 특정 상황 별 최적화 역시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AI 칩 투자 지도



자료: CICC 리서치센터

AI 칩 상장사들의 매출액 통계와 각 분야 AI 상용화 비율 예상치로 계산하면, 2017년 AI 칩 시장 규모는 이미 39억 1000만 달러에 달했다. 세분화된 시장 규모는 아래와 같다:

- 2017년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AI 칩 시장규모는 약 23.6억 달러이고, 이 중 클라우드 단말의 트레이닝 기능 IC 시장은 20.2억 달러, 추론 기능 IC 시장은 3.4억 달러이다.
- 2017년 글로벌 핸드폰 AI 칩 시장 규모는 3.7억 달러이다.



- 2017년 글로벌 보안감시카메라 CCTV AI칩 시장 규모는 3.3억 달러이다.
- 2017년 글로벌 자율주행 AI칩 시장 규모는 8.5억 달러이다.

AI 칩 시장 규모와 경쟁 구도

응용 상황	시장규모 (백만달러)		CAGR (2017~2022)	TOP TIER	기타 경쟁사	
	2017	2022				
클라우드	트레이닝	2,015	17,212	54%	Nvidia	Google, Intel, AMD, 창업회사(기회 희박)
	추론	343	7,186	84%	Nvidia	Google, Intel, AMD, 창업회사(기회 존재)
에지	스마트폰	368	3,793	59%	애플, 삼성, Hisilicon, Qualcomm, MediaTek, RDA	창업회사 (IP 라이선스 모델)
	보안	330	1,822	41%	Hisilicon, Amballa, Intel(Movidius), Nvidia	창업회사(기회 희박)
	자율주행	854	5,204	44%	Intel(Mobileye), Nvidia	창업회사(기회 존재)
합계		3,910	35,217	55%		

자료: CICC 리서치센터

Nvidia는 2017년에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트레이닝칩 시장 규모가 110억 달러, 추론칩(클라우드 컴퓨팅과 에지 컴퓨팅) 시장 규모는 1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 예측했다. Intel은 얼마전 막을 내린 Intel DCI 2018 Summit에서 데이터업무가 하드웨어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 주장했다. Intel은 2022년 데이터 센터 AI 가속 진행에 쓰이는 FPGA의 TAM 시장규모 예측을 7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다.

(1) 클라우드 컴퓨팅 트레이닝칩: TPU가 Nvidia GPU의 독점 지위를 흔들기는 매우 어려움

트레이닝은 대량의 데이터 샘플을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반복 대입하여 각 뉴럴 네트워크의 '정확한' 결과를 찾는 과정이다. CPU는 산술논리장치(ALU)가 적고 계산 능력이 낮아 직접 트레이닝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로 인해 트레이닝은 일반적으로 'CPU+가속칩' 변칙 계산모델을 채택한다. 현재 Nvidia의 GPU+CUDA 계산 플랫폼은 가장 성숙한 AI 트레이닝 솔루션이다.

(2) 클라우드 컴퓨팅 추론칩: 춘추전국시대

트레이닝칩과 비교하면 추론칩은 해시 당 에너지, 딜레이, 원가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초기의 추론은 GPU를 채택하기도 했지만 각 산업별 특수성으로 구체적인 뉴럴 네트워크 계산법 최적화가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내며, FPGA/ASIC의 성능이 더욱 좋다. Nvidia, Google, Xilinx, Altera(Intel) 등 대형 IC 업체 외에도 Wave computing, Groq 등 창업회사 들도 클라우드 컴퓨팅 추론칩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 회사로는 Cambricon, Bitmain도 클라우드 컴퓨팅 칩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3) 스마트폰 AI 칩: 경쟁 구도 안정, 기존 업체의 지속적인 수혜

핸드폰 칩 시장은 현재 (1)애플, 삼성, 화웨이 등 수직계열화 비즈니스모델 업체, (2) 퀄컴, 미디어텍, RDA 등 칩 제공업체 그리고 (3) ARM, Synopsys, Cadence 등 IP 라이선스 업체를 포함한다. 수직계열화 비즈니스모델을 채택한 업체의 칩은 대외 판매가 아닌 자사 브랜드 본체에 탑재한다. 자사 소프트웨어 맞춤 특화 기능을 제공하여 효율로 승부를 본다. 칩 제공업체는 성능면에서 강세를 띄어 남은 마켓쉐어를 차지한다.

2017년부터 애플, 화웨이 하이실리콘, 퀄컴, 미디어텍 등 주요 칩 업체는 AI 가속 기능을 지원하는 신규 칩을 속속히 출시하고 있으며, AI 칩은 점진적으로 미들엔드 제품까지 침투하고 있다. 핸드폰 시장은 공간이 제한적이므로 외부 AI 칩이 핸드폰 제조업체에 채택되기는 매우 어렵다. AI 가속칩 설계 능력에서 우세를 띄는 기업들은 (예: Cambricon 등) 일반적으로 IP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 (4) CCTV AI 칩: 하이실리콘, Ambarella, Nvidia, Mobileye의 경쟁 구도

근 십여 년 간 영상 감시카메라 산업은 '고화질화', '인터넷화' 두번의 교체기를 맞이했었다. 2016년 이래로 AI가 영상 분석 영역에서 활용됨에 따라 현재의 영상 감시카메라 산업은 제3차 업그레이드 주기-'스마트화'를 맞이했다. 추론칩은 감시카메라의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구조화 처리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에지'의 에지 컴퓨팅 솔루션이 점차 실현되고 있다. 우리는 CCTV에 응용된 추론칩 시장 규모가 2017년의 3억 3천만 달러에서 2022년까지 18억 달러까지 성장, 연평균성장률이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는 현재 전체 보안 AI 칩 시장 경쟁 구도가 안정됐고, 현존 제조업체들은 전방 고객사와의 장기적인 협력으로 보안 스마트화 업그레이드 수혜를 받아 신규 진입자의 시장 공간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보안 AI 칩 다운스트림은 안정적이며 하이캉웨이스, 대화테크 등 CCTV 솔루션 제공업체가 주를 이룬다. 고객사와 전통 영상 디코딩 칩 업체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은 고착력이 높아 보안 AI 칩처럼 성능의 차별화가 어려운 분야는 동일한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창업회사의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 (5) 자율주행 AI 칩: 블루오션, 새로운 경쟁자들의 출현

스마트폰, 보안 외 자율주행자동차 또한 인공지능의 주요 응용 산업 중 하나이다. 차량용 반도체의 높은 수요로 인해 공급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자율주행 추론칩의 수요도 5년내에 고속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규모는 2017년의 8억 5천만 달러에서 2022년 52억 달러까지, 연평균성장률이 44%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차세대 제품은 Mobileye와 Nvidia가 주도 할 것이다. Mobileye는 알고리즘을 중시해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결합으로 효율 제고를 도모한다. 최근 개발한 EyeQ5 칩은 10W의 전력에서 24TOPS 해시레이트를 실현할 수 있다. Nvidia는 전통 하드웨어 제조업체로서 GPU 그래픽 처리의 장점을 활용해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이에 걸맞게 선두자리에 위치하고, 칩의 절대적 계산능력 실현을 중요시한다. 올해 3분기 테이프아웃, 2019년 3분기에 양산할 Pegasus 플랫폼은 Nvidia 차세대 GPU 2대를 탑재하여 320TOPS의 해시레이트를 실현, L5급 수요를 완전히 충족할 것이다.

Bio & Healthcare (2018.9.11)



본 자료는 SV Investment(http://svinvestment.co.kr)에서 제작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중국 증권사 레포트, 신문, 협회 등의 언론 자료를 번역,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성, 정확성에 대해서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장형식 이사(jangform@svinvest.com), 배진희 심사역(jhbae@svinvest.com) 또는 윤이상 심사역(ysyoon@svinvest.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egatrend Investors(http://cafe.naver.com/qfiichina)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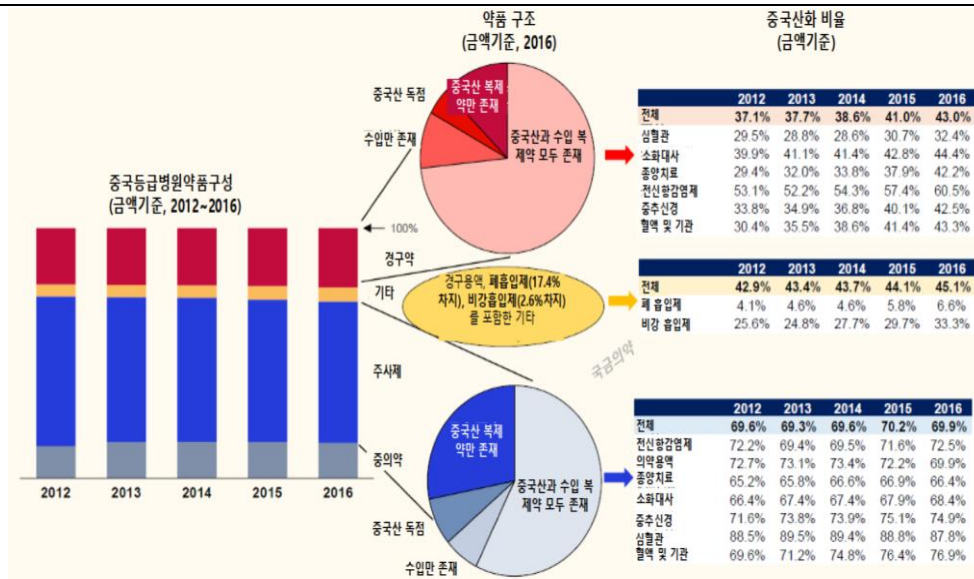
[중문자료 작성: 배진희 심사역, 번역: 서윤영 (북경대 광화관리학원)]

Sinolink Securities – 복제약 제약사 투자 로직

1. 주요 분야 중국 국산화 비율 이미 높지만 아직 일부 수입 제품 대체 기회 확연히 존재

약품 구조 별 분류했을 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경구약과 주사제에 있어 복제약이 수입제품을 대체할 공간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 약품 구조로 살펴보면(그림 1의 원그래프), 경구약의 73.3%, 주사제의 57.3%가 중국산약과 수입약이 경쟁 중이다. 이 중(그림 1의 표), 경구약의 중국산화 비율은 이미 약 43%이고, 주사제의 중국산화 비율은 약 69.9%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세분화 영역 중 2 배 가량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비교적 제한적이다. 또한 중국산화 비율은 금액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복제약이 수입약보다 가격이 낮은 것을 고려하면 복제약 처방 수로 계산한 실제 국산화 비율은 더욱 높다.

그림 1: 약품 중국산화 비율



자료: 위생통계연감, 국금(国金)증권연구소

2. 일부 세분화 분야는 수입약품 대체할 기회가 확연히 존재

그림 1을 보면 직관적으로도 폐 흡입제, 비강흡입제, 심혈관 영역에서 수입약품 대체 기회가 존재한다. 특히 폐질환 흡입제의 중국산화 비율은 6.6%이다. 일반 약품과 비교해 흡입제는 효과가 빠르고 생체 이용률이 높고 사용량은 적은 등의 장점이 있어 중국 제약회사는 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림 2: 주요 흡입제 품목 관련 중국 기업 현황

품목	외자	일부 중국기업 개발 현황	
		개발 단계	개발 현황
풀미코트레스폴분무용 현탁액	아스트라제네카, 상품명 풀미코트레스폴분무용현탁액, 2017년 매출 30억위안	정다텐칭	생산신청
		건강원(타이타이약품)	생산신청
		창평 약업	생산신청
		루난베이터	임상승인
Salmeterol Fluticasone	GSK, 상품명 SERETIDE 2017년 매출 10.6억위안	건강원(심천해빈제약)	생산신청
		정다텐칭	생산신청
		오우미니아약	생산신청
		창평 약업	생산신청
		형웨이 제약	임상승인
		징웨이제약	임상승인
티오토르피움 브로마이드	Boehringer Ingelheim, 상품명 스피올도, 2017년 매출 4.5억위안	정다텐칭	시장출시
		선거제약	시장출시
		난창출이	시장출시
		징웨이제약	임상승인
		건강원(심천해빈제약)	임상승인
Combivent 흡입제	Boehringer Ingelheim, 상품명 Combivent, 2017년 매출 2.8억위안	루난베이터	시장출시
		건강원(타이타이약품)	생산신청

자료: Farmcube, 국금(国金)증권연구소

3. 집중도 제고: 복제약 중국 기업의 미래 투자 주요 로직

비록 현재 바이오 시장 주요 영역의 중국산화 비율이 높긴 하지만, 아직 제약회사 수가 많고 집중도가 낮은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는 정책이 한단계 나아가 추진됨에 따라 복제약 산업의 투자에 있어 선두 복제약 기업에 집중도를 높여야 하며, 동시에 중국 복제약 시장 규모의 성장에 따라 선두 기업들이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복제약 시장 현황: 가격 인하와 개발 비용이 소형기업을 이중 압박

중국의 의약품 낙찰 과정 중 약값 연동, 의료기관의 가격협상, 대량구매 등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복제약의 가격 보호가 어려워지고 있다. 가격 인하 추세에서 소형기업의 판매는 더욱 어려워지고, 기존에 판매 범위가 넓던 기업이 복제약 중 이윤 높은 의약품종을 확보하고 있다.

복제약 일치성 평가 정책 실시 후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가격이 30-50 만위안에서 400-600 만위안으로 올라가는 등 연구개발 비용이 상승하여 소형기업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5. 복제약 시장 미래: 약품심사개혁에서 강점을 지닌 선두 제약사

심사평가 표준 강화는 선두 기업이 더 많은 품목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한다. 그림 3에 표시된 것처럼, "722 사건"이후의 복제약 신청은 거의 절반이 선두 기업으로부터 제출된 것이고,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의약품 수량의 23.5%를 차지한다.

그림 3: 선두 바이오 기업, 복제약 확대 주도

	2015년 722사건이후 유요 ANDA	23차례 우선심사평가 중 최초복제 ANDA
총 품목 수	251	50
핵심기업 품목 수	119	37
상위10개기업 품목 수	59	32
중국생물제약	12	하오썬약업 6
형웨이 제약	6	중국생물제약 6
난징까오커(우수과)	6	형웨이 제약 5
치루제약	6	치루제약 5
신리타이	6	원대의약 3
하약그룹	5	화방건강 2
하오썬약업	5	석약그룹 2
석약그룹	5	웬둥생물 1
복성 제약	4	인푸 제약 1
하이정약업	4	커룬약업 1
커룬약업	3	하이정약업 1

자료: 회사 사업보고서, 국금(国金)증권연구소

## 6. 중국 복제약 시장 규모 꾸준한 확대, 글로벌 상위권 위치

우리는 위 글의 서론에서 미래 약품 시장 전망을 다뤘다. 5년 내 복제약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지만(55%→45%), 전체 복제약 시장 파이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6338.2 억위안→7465.1 억위안). IMS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2016년 복제약 매출은 800억 달러로 중국 복제약 시장은 미국 시장과 대적할 만한 규모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권에 위치한다.

## 7. 투자 의견

복제약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두 제약사의 집중도 제고가 바이오 시뮬러 기업의 미래 투자 주요 로직이다.

- 일부 세부 분야를 제외하면 기존 의약품 대체 공간은 제한적;
- 일반 복제약 기업은 제품 업그레이드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제품 경쟁 심화에 따라 이윤율이 하락해 제품 다양화에 어려움 존재;
- 현재와 미래에 있어 선두 제약사는 판매, 연구개발, 자금조달 등 여러 방면에서 우세를 띄어 마태효과가 나타나고 복제약 시장 규모 성장에 따라 선두기업의 집중도 상승에 주목해야한다.

## 8. 리스크

(1) ICH 가입으로 인한 중국 제약회사의 국제 고표준 충격 위험, (2) 제약회사 연구개발 비용 상승, (3) 약품 일치성 평가 미통과 위험, (4) 제품 품질 위험, (5) 의료보험 가격조정 압력 강화 위험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2018.9.10)



### 1.알리바바, 올해 블록체인 특허 세계 1 위(출처:ZDNet, 2018.9.4)

올해 블록체인 특허를 가장 많이 확보한 기업은 알리바바였다.

중국 시장조사 업체 아이피알데일리(IPRdaily)가 발표한 '2018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기업 순위 톱 100'에 따르면 알리바바가 90 개의 특허로 1 위에 올랐다. 100 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을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이 차지해 중국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열기를 짐작케했다.

이 통계는 중국 특허데이터연구소(Incopat)와 특허 리서치 업체 패이터닉스(Patentics)가 8 월 10 일 기준 중국·미국·유럽·일본·한국 등 5 개 국가의 특허 기관과 PCT 특허 신청 공개 데이터를 집계한 것이다.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는 40 개의 특허로 8 위에 올랐으며 중국은행이 31 위(22 개), 중국 결제 서비스 기업인 차이나유니온페이와 39 위, 중국 검색포털 기업 바이두는 40 위를 기록했다.

한국 코인플러그가 41 개로 7 위를 차지했으며 중국 이외 기업 중에서는 IBM 과 마스터카드가 각각 89 개와 80 개의 특허로 2 위와 3 위에 올랐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53 개로 4 위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과 미국 금융 및 인터넷 기업의 블록체인 특허 확보 경쟁이 치열함을 보여준다.

이외 후지츠가 46 위, 페이팔이 58 위, 페이스북이 92 위였다.

중국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3 월 말까지 중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숫자는 이미 456 개였다.

최근 베이징, 상하이, 선전, 항저우가 중국 블록체인 창업이 가장 활성화된 도시로 꼽혔으며 이들 4 개 도시 기업의 점유율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블록체인 투자가 가장 활발한 도시는 베이징이다. 38.1%의 투자가 베이징에서 발생했다. 두번째 도시는 상하이로 17.8% 였다. 세번째 도시는 선전으로 16.3% 였다. 항저우, 광저우, 청두, 충칭, 난징이 뒤를 이었다.

중국 블록체인 투자 유형으로는 엔젤투자가 56.3%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시리즈 A 투자 비중은 15.6% 였다.

중국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8~2023 블록체인 시장 전망 및 투자 기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블록체인 기술 매출은 2 천 900 만 위안(약 47 억 2 천 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3.6% 증가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징둥 등 블록체인 투자 기업이 늘어나면서 올해 이 수치는 크게 확대돼 8 천 100 만 위안(약 131 억 8 천 100 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장률은 179.5%에 이른다.

### 2.중국 대법원, 블록체인 증거 인정...새 규칙 공표(출처:서울경제, 2018.9.9)

중국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이 법률적 분쟁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증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7 일(현지시간)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내 법률 분쟁에서 블록체인 증거를 공식 인정한다"고 중국인터넷법원의 소송판결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공표했다. 이 규칙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저장되고 인증된 디지털 증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증거로 제출된 블록체인 기반 증거는 전자서명, 믿을만한 타임스탬프와 해시값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3.[인터뷰]권롱라이 SSP 대표 "블록체인과 IoT 결합...中블록체인계의 샤오미"

(출처:중양일보, 2018.9.10)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실물경제와 연결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실제 매출을 일으키며 더이상 암호화폐가 '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중국 선전에서 만난 권롱라이(Quanrong Lai) '스마트웨어 프로토콜(SSP)' CEO는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엔 모든 데이터가 공짜였다"며 "스마트 기기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의료, 제약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하고, 데이터 제공자에게 토큰으로 보상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SP는 탈중앙화 구조를 활용해 공유 가치를 생성하고 IoT 단말기를 포함한 다양한 기기와의 연동을 통해 공유 경제 생태계의 발전을 지향한다.

통상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얻으려면 그래픽 카드를 구매해 채굴(Mining, 마이닝)을 해야 한다. 반면 SSP는 사용자가 IoT 기기를 구매해 이용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면 획득할 수 있다.

올해 한국 나이로 34세인 권롱라이 CEO는 "지난해 처음 회사를 만들 당시엔 스마트 하드웨어 제조사로 시작했다"며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다양한 IoT 기기들을 만들다가 올해 들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SP에 대해 "중국 블록체인계의 샤오미"라고 소개했다.

이어 "SSP도 샤오미처럼 여러 IoT 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한다. 하지만 SSP가 샤오미와 다른 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토큰을 사용자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경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더 우세하다"고 자신했다.

SSP는 중국 CCTV 인기 캐릭터 '양스덩덩'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해 만든 교육용 AI 로봇을 판매 중이다. 아이들은 이 로봇과 대화하며 영어를 배울 수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자주 보는 동영상을 추천하고 그에 상응하는 SSP 토큰을 준다.

권롱라이 CEO는 "지난해 처음 회사를 만들 당시엔 스마트 하드웨어 제조사로 시작했다"며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다양한 IoT 기기들을 만들다가 올해 들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판매하는 로봇은 이미 빅데이터로 형성된 하나의 물체다. 대화를 하게 되면서 더 총명해지고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된다.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걸 많은 주제로 이야기했는지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엔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짜로 줬다.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도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토큰으로 돌려드리고자 사업을 시작했다"며 "데이터가 AI, IoT 블록체인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다. IoT 기기로 데이터를 수집해 학습하고, 이걸 블록체인으로 사람들에게 데이터 제공 대가를 주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특히 "SSP는 실체가 없는 '에어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다. 이미 스마트기기, 로봇 등과 연결해서 상용화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는 제품(스마트기기)을 만들고 있고, 그 제품으로 인한 매출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SSP 는 올해 1 월 'Mau Huan Health'라는 스마트 헬스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스마트웨어 생태계에 스마트 헬스 상품을 도입했습니다. 올해 말 기준 10 여개 제조업체와 제휴를 맺고 온라인상에서 IoT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권롱라이 CEO 는 "10 여개 브랜드와 합작을 하고 있다.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스마트기기를 10 만개 넘게 판매했다"며 "현재 수면의 질을 체크하는 IoT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출시되면 최소 20 만개 이상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이 IoT 기기는 사람이 잠에 깊게 들었는지 얇게 들었는지, 자는 과정서 호흡을 멈추진 않았는지 모든 것을 체크한다. 만약 사용자의 수면 데이터 결과가 좋지 않다면 수면관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연결해 주거나,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회사 입장에서 수면 데이터를 활용해 수면 관리 업체, 제약회사, 식품회사, 보건회사와 계약해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다. 우리와 계약을 맺은 회사는 이 수면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SSP 의 프리세일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총 발행량 100 억개 중 프리세일로 25 억개가 판매됐다. SSP 공동 설립자 권롱라이 CEO 를 비롯해 프랭크 첸(Frank Chen), 리양 양(Liang Yang) 3 명 모두 중국 출신이지만, 정부가 ICO(암호화폐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펀드회사를 통해 프리세일이 진행됐다.

권롱라이 CEO 는 "중국에서 ICO 는 금지지만 암호화폐를 팔고 사는 건 금지가 아니다. 여차피 전세계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보다 자유롭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암호화폐가 없는 블록체인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라며 "텐센트나 알리바바도 이미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들도 현재까진 암호화폐가 없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엔 중국 정부가 124 개 해외 암호화폐 거래플랫폼의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미 베네수엘라에 이어 러시아도 정부 주도의 암호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권롱라이 CEO 는 "지금까지 정부는 암호화폐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만약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하드웨어랑 연관된 암호화폐기 때문에 국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와는 다를 것이다. 향후 정부가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면 SSP 를 찾아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SSP 는 현재 후오비를 비롯해 9 곳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상장돼 있다.

권롱라이 CEO 는 "한국은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시장이 잘 발전하고 있다"며 "SSP 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진출을 노리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45) (2018.9.11)

본 자료는 아시아디자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미디어&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형건 교수의 글입니다. 본 자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형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 전통을 현대에 맞게 디자인하기

중국 전통의학은 건강한 신체를 위하여 기를 잘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침과 뜸은 기를 잘 흐르게 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만의 치료 방법이다. 예전부터 중국과 한국, 일본 사람들은 몸이 버거하면 뜸을 떼서 몸을 편하게 하였다.



<중국 상하이엔 건강을 위하여 뜸을 무료 체험하는 곳들을 볼 수 있다>

중국은 여러 뜸이 있지만 목뒤 혹은 무릎관절 부분에 사각 박스를 대고 100 원짜리 동전 굵기의 원통 속으로 뜸을 뜨고 있다. 한 번 뜸을 뜨는데 약 20 분쯤 걸린다고 한다. 뜸을 뜨고 나면 한결 몸이 가벼워질 것이다. 혼자서 사용하는 것이 여간 불편할 것이며 뒷정리도 귀찮을 거다. 이렇게 좋은 것이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이다. 발전이 없다. 효과가 있지만 전통적 그대로이니 모두가 관심이 없다. 관심을 받고 발전을 하려면 디자인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뜸기기를 현대 생활에 맞게 디자인하여 신제품을 나왔다.



직사각형의 썩 덩어리를 불을 붙여 뜸기기 안에 장착하면 된다. 뜸기기 안에는 송풍기가 있어 바람을 일으켜 지속적으로 썩을 태우고 연기는 필터를 통하여 연기와 냄새를 잡는다.

필자가 직접 해보니 뜨겁지 않고, 냄새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연기는 필터에서 걸려내서 거의 없었다. 그러나 사용하려면 이런 저런 부분에 불편하다. 완성도가 많이 부족한 디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생각하지 않는 곳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제품을 개발해 신선하였다.



좋은 전통이 한 두개가 아니다. 날이 가면 갈 수록 조상들의 지혜에 감복한다. 예전에는 그 상황에 맞게 디자인하여 사용하였다. 이제는 현대 생활에 맞게 디자인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전통 제품도 외면 받는다.

좋은 전통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 깔려 있다. 안 보여서 뭘 하여야 할지 모른다.

현대 생활에 맞게끔 디자인하여 보아라.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

## 주간 중국 VC 투자 요약

## IT오렌지 주보: 9/3~9/9까지 있었던 75개 국내 투자/합병 건

(출처:IT 오렌지주보(IT 桔子), 2018.9.10)

IT오렌지의 지난 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주(9.3~9.9)에는 총 75건의 국내 투자/합병이 발생했으며 8월 마지막 주에 비해 투자/합병건이 다소 감소했다. 분야별로 보면 하드웨어 분야의 투자/합병건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와 교육 분야가 각각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초기투자가 여전히 많은데 그 중 A라운드 투자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드는 1건, 엔젤 투자는 5건으로 인수합병건은 저번주에 비해 6건이 증가, 증가폭 100%를 기록했다.

지난 주 BAT 등의 대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9월 5일 바이두동영상(百度视频)은 1억 달러 규모의 B라운드 투자(바이두 주도)를 유치했다. 기타 주요 투자자로는 호우저루이(厚泽如意), 징카이캐피탈(鼎凯资本), 귀진펀드(国金基金)등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했고, 이카이캐피탈(易凯资本)이 전속고문으로 참여했다.

9월 7일, 바이두는 온라인 학습번역 플랫폼 이마왕(译马网)에 수천만 위안 규모의 A라운드 투자를 진행했다. 신이커지(新译科技) 역시 투자에 함께 참여하였다.

텐센트는 지난 주 두 건의 투자를 진행했다.

9월 5일 대학생 온라인 교육회사 카오충(考虫)은 가오링캐피탈(高瓴资本) 등으로부터 5,500만 달러의 D라운드 투자를 받았다. 텐센트와 징웨이중귀(经纬中国)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9월 6일, 신선제품 전자상거래 업체 메이르유셴(每日优鲜)은 4.5억 달러 규모의 새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본 투자에는 골드만삭스, 텐센트, 스다이캐피탈(时代资本), Davis Selected Advisers가 첫 투자자로서 투자를 진행했다. 이에 바오리캐피탈(保利资本)은 전략투자를, Glade Brook Capital 과 화싱신경제펀드(华兴新经济基金)은 공동투자를 진행했으며 구주주 Tiger Global 과 Sofina는 계속 투자에 참여했다.

알리바바는 지난 주 총 5건의 융자합병을 진행했다.

9월 3일, 자동차 신소매 및 신금융 플랫폼 다소우차(大搜车)는 5.78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본 투자에는 춘화캐피탈(春花资本), 천싱캐피탈(晨兴资本)이 첫 투자자로 참여했다. 그리고 알리바바, 하오상캐피탈(昊翔资本), 링펑캐피탈(领沅资本), 파라딩 주식투자 (帕拉丁股权投资), 카이밍투자(锴明投资), 중러펀드(中俄基金), 양광보험(阳光保险), 이신(宜信) 등 기관도 투자에 참여했으며 가오구캐피탈(高鹄资本)이 전속재무고문을 맡았다.

9월 5일 타오바오는 가오신링소우(高鑫零售)의 26% 지분을 인수했다. 9월 6일, 중고전자제품 매입 플랫폼 후이소우바오(回收宝)는 알리바바로 부터 C1라운드 투자 유치를 받았다. 본 투자사건의 용자액과 가치평가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날, 스마트투자자문회사 홍량엔지우(弘量研究)는 A++라운드 투자를 진행했다. 첫 투자를 이끈 기관은 중인귀지(中银国际) 산하의 부속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Bohai XingWang 과 L.P.펀드로, 알리바바 홍콩 창업자펀드 또한 본 투자에 참여했다.

기타 영역 투자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월 7 일, 트렌드 의류 리스 공유플랫폼 이얼싼(衣二三)은 알리바바로부터 전략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정확한 용자금액은 공시되지 않았다.

부동산 서비스 영역에서는 9 월 3 일, 요우커공창(优客工场)이 新건축설계서비스회사인 다관지엔주(大观建筑)를 인수했다.

9 월 6 일, 기업서비스 영역에서는 서버안전보강 솔루션제공업체 원수어(云锁)가 치후 306(奇虎 306)으로부터 8,000 만 위안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스포츠 영역에서는 9 월 5 일, 아이치이스포츠(爱奇艺体育)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석상에서 8.5 억 위안의 A 라운드 용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의료 영역에서는 9월 4일, 인터넷 의료미용 플랫폼 신양(新氧)이 7,000만 달러의 E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본 투자건에는 란신 아시아 투자그룹(兰馨亚洲投资集团)이 첫 투자자로서 참여했다. 중인귀지, 중러투자펀드(中俄投资基金), 징웨이중귀가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 북대 인큐베이터 한국 프로그램 및 KIC중국 5기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추진계획(안)v4.3

(2018.9.10. 한국혁신센터(KIC)중국)

### ■ 사업개요

- 행사 명: 북대 인큐베이터 한국 프로그램 및 KIC중국 5기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 시 간: 2018년 7월 3일~9월 22일 (12주)
- 장 소: 북대 인큐베이터 및 KIC중국
- 주최기관: 과기정통부
- 주관기관: 북대 인큐베이터, KIC중국
- 참가기업: 14개 기업 (사전 심사 통해 선정)

### ■ 일정

주	시작일	활동
1	7.3(화)	1.오리엔테이션 2.입주식(7.4) 3.중국 진출 CEO과정 (7.3~7.7) 4.중국 스타트업 방문(1) 5.개별 멘토링(1)
2	7.9	1.중국현지 마케팅 전략수립 교육(1)(월)
3	7.16	1.중국현지 마케팅 전략수립 교육(2)(월) 2.미니 IR(11)
4	7.23	1.중국현지 마케팅 전략수립 교육(3)(월)
5	7.30	1.BP 발표능력 향상 교육 2.개별 멘토링(2)
6	8.6	1.미니IR(12) 2.ICT스타트업 간담회
7	8.13	1.개별 멘토링(3)
8	8.20	1.창업대회 예선전 참가
9	8.27	1.창업대회 결승전 참가
10	9.3	1.중관촌 전시 센터 방문
11	9.10	1.인턴 마케팅 보고서 평가회 2.창계미래 창업대회 한국예선전 및 졸업식(9.10)
12	9.17	1.IDE-EXPO (9.20~22 스자좡) 전시 / K-데모데이

■ 인큐베이션 기업 리스트

NO.	회사명	기술분야	제품/서비스이름	추천기관
1	버즈폴	AI의료	자궁경부암 인공지능 원격판독시스템	인천창조 경제혁신센터
2	서큘러스	소셜로봇	소셜 로봇 및 클라우드 서비스	KT
3	브렉스랩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AR 소프트웨어 개발	개인
4	토크나우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화상회의 UC&C 서비스	안양창조 산업진흥원
5	더센	전기자동차 테스트장비	2차 전지 테스트 시스템 제조/개발	K-ICT창업 멘토링센터
6	자인케미칼	친환경화학	중성살균수 제조장치, 무세제세탁기, 흡착필터	광주창조 경제혁신센터
7	에스오에스랩	A자율주행	자율주행자동차 3D 라이다	한국엔젤 투자협회
8	쿠뉴드림팩토리	온라인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전자스탬프, 프랜차이즈 등	개인
9	엘비스코리아	헬스케어	의료기기신발 개발	중국 기진출
10	트레저헌터 엔터테인먼트	MCN	'왕홍' 매니지먼트	중국 기진출

■ 엑셀러레이션 기업 리스트

NO.	회사명	기술분야	제품/서비스이름	추천기관
1	노르마	무선보안	무선, IoT 네트워크 보안 점검 및 컨설팅	경기창조 경제혁신센터
2	코어무브먼트	헬스케어	EMS트레이닝 머신	인천창조 경제혁신센터
3	울랄라랩	스마트제조	IoT 및 Data 기반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한국엔젤 투자협회
4	로봇 올림피아드협회	로봇교육	로봇올림피아드 교육	중국 기진출

## 첨부1: IDE-EXPO 참가 계획(안)

(2018.8.29. KIC중국)

### ■ 행사개요

- 행사명: 2018 International Digital Economy Expo
- 시간: 2018년 9월 20일(목)~9월 22일(토)
- 장소: 중국 스좌좡 국제 전시 센터
- 주최기관: 과기정통부
- 주관기관: KIC중국, 중국전자상회
- 참가인원: 9개 기업 (5기 인큐베이션 및 3기 엑셀러레이션 기업)
- 행사목적: 입주 기업 전시 및 데모데이 통해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 행사내용: - 전시 (9개사)
  - 제5차 K-데모데이 차이나 (9개사)
  - 포럼축사(과기정통관)
  - 포럼발표(울랄라랩, SOSLAB 예정)

### ■ 행사일정

일자	시간	주요 내용	비고	
9월 19일(수)	8:00~12:00	북경-스좌좡 이동	버스	
	13:00~17:00	부스 준비		
9월 20일(목)	9:00~17:00	전시		
	9:00~17:00	포럼 발표	과기정통관, 기업 2	
9월 21일(금)	9:00~17:00	전시	참고	
	14:00~17:00	5차 K-데모데이 차이나		
9월22일(토)	9:00~12:00	전시		
	1안	17:35~21:10	스좌좡-서울	9C8789
	2안	13:00~18:00	스좌좡-북경(공항) 이동	버스
		21:40~00:45	북경-서울 이동	KE854

### ■ 지원사항

- 공동 부스(기업당 전시용 테이블 1개, TV 1대)
- 스좌좡 현지 호텔(3박, 기업당 1실)
- 북경-스좌좡 왕복 버스 제공

## 첨부2:북대 '창계미래' 2018국제청년과기창업대회 한국전 및 졸업식 추진계획(안)

(2018.9.10.KIC중국)

■ 행사개요

- 행사명: 북대 '창계미래' 2018국제청년과기창업대회 한국전 및 졸업식
- 시간: 2018년 9월 12일(수) 14:00~17:00
- 장소: KIC중국
- 주최기관: 과기정통부
- 주관기관: KIC중국, 북대 인큐베이터
- 행사목적: 북대 인큐베이터 한국 프로그램 및 KIC중국 5기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기업 졸업 로드쇼
- 참가인원: 참여 기업 14개사, 심사위원 5명

■ 행사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내빈 소개	사회자:조천
14:05~14:10	환영사	북대과기원 Guocheng Wang 부총재
14:10~14:15	환영사	KIC중국 고영화 센터장
14:15~14:20	기념사진	
14:20~14:30	심사 규정 설명	Jin Liu(심사위원장)
14:30~15:20	로드쇼(7개사)	각 기업 4분 발표, Q&A 1개
15:20~15:40	휴식	
15:40~16:30	로드쇼(7개사)	각 기업 4분 발표, Q&A 1개
16:30~16:40	KVIC소개	한국벤처투자 홍경진 과장
16:40~16:50	졸업증 수여	
16:50~17:00	심사결과 발표 및 수상	
17:00~	식사 장소로 이동	장소미정

■ 시상

- 중국 유명 매체 보도
- 1등: '창계미래' 2018 인공지능대회 폐막식에 우수 기업 대표로 발표
- 1등-6등: '창계미래' 2018 인공지능대회 결승전 입장권